

공개토론회 자료

본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 · 체육 · 관광분야 -

---

일시: 2010. 6. 18(금) 14:00~16:30

장소: 대한체육회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분야 작업반

본 자료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 로 그 램

---

13:00~14:00

등 록

14:00~15:00

제1주제: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평가 및  
정책방향

사 회 : 유혜영 (단국대학교 교수)

발 표 :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윤남순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이재동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회장)

정상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허남덕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장)

15:00~16:00

제2주제: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사 회 : 유혜영 (단국대학교 교수)

발 표 : 유의동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김규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박인규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장)

이선영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

최청락 (건국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 목 차

## 토론 주제 1 :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평가 및 정책방향

<b>I. 기존 재정투자분석</b> .....	<b>1</b>
1. 문화체육관광 일반현황 .....	1
2. 문화체육관광 재정 운용 추이 .....	3
3. 재정투자 성과 평가 .....	5
4. 재정투자 개선과제 .....	9
<b>II. 향후 정책방향 및 10-14 재정투자 중점</b> .....	<b>13</b>
1. 정책 기본방향 .....	13
2. 10-14년 재정투자 중점 .....	16
<b>III. 제도개선 및 재정운용효과 제고 방안</b> .....	<b>18</b>

## 토론 주제 2: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 효율화 방안

<b>I. 문제의 제기</b> .....	<b>27</b>
1. 국제경기대회 유치 성과 .....	27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증가 .....	28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문제제기 .....	29
<b>II. 국제경기대회 국내 개최실적</b> .....	<b>31</b>
1.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역대 개최지 .....	31
2. 국내 국제경기대회 개최 실적 .....	42
<b>III. 국제경기대회 지원현황 및 예산구조분석</b> .....	<b>51</b>
1.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현황 .....	51
2.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예산구조 분석 .....	58
3. 정책적 시사점 .....	63
<b>VI.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방안</b> .....	<b>66</b>
1. 주요 현안과제 .....	66
2. 제도개선 방안 .....	73
3. 절차개선에 대한 제언 .....	93

# **토론 주제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평가 및 정책방향**

## I. 기존 재정투자분석

### 1. 문화체육관광 일반현황

- 문화체육관광, 국민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
  - 문화, 체육, 관광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분야의 사회적 역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에서도 그간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으로써 국가재정에서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져 왔음.
    - 문화예산은 1977 - 1984년까지 일반회계 대비 0.2%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0.5%수준에 이르렀으며, 이후 매년 0.1% 포인트씩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총예산의 1.0% 수준을 유지
  - 소득증가, 주5일제 근무의 정착, 고령화의 심화로 문화 소비수요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소비자의 고급문화에 니즈의 증가로 질적으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정부는 국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문화, 체육, 관광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이벤트의 유치와 지역별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하는 등 문화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인프라의 규모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성장, 고용 등 산업적 역할과 비중 증대
  - 최근 산업혁신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소비 환경의 급변, 문화의 산업화 가속, 국경을 초월한 문화상품거래의 증가 등으로 문화의 대량소비시대가 도래
  - 예를 들면 기존의 음악 매체는 사라져가고 디지털 음원(MP3)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되고, 등장한지 불과 10여년만에 온라인 게임이 대중화되고 있음. 영화는 3D 입체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의 도입으로 고화질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음.
    -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5년('05-'09년)간 문화산업예산과 관광부문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각 8.7%, 10.8%)이 전체예산의 연평균 증가율(6.6%)을 상회함.
  -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문화, 체육, 관광은 국민들의 복지와 후생뿐만 아니라 성장과 고용 등 국민경제 및 산업적으로도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문화의 산업화와 글로벌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현재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하지만, 한류붐, IT네트워크 등을 배경으로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전략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2. 문화체육관광 재정 운용 추이

<표 1> 문화체육관광 재정 운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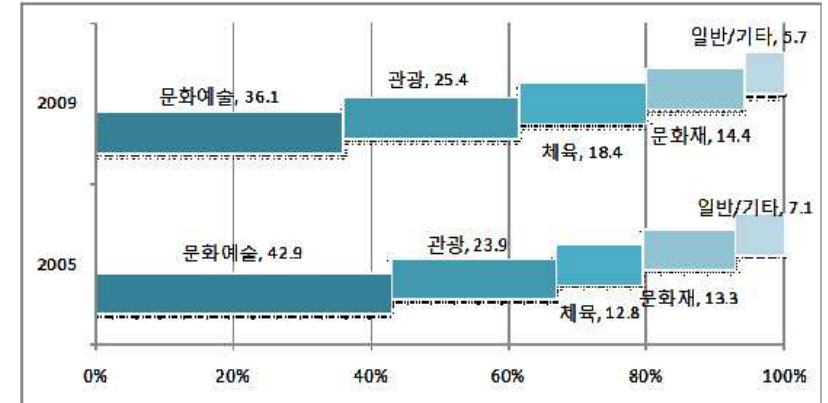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 분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실적	연평균
<b>문화및관광 분야</b>	<b>26,324</b>	<b>28,279</b>	<b>28,330</b>	<b>30,076</b>	<b>34,430</b>	<b>6.9</b>
○ 예산	15,107	16,661	16,544	18,156	21,160	8.8
○ 기금	11,217	11,618	11,786	11,920	13,270	4.3
▪ 문화예술 부문	11,286	12,091	11,133	10,434	12,431	2.4
▪ 관광 부문	6,297	6,362	6,649	7,378	8,746	8.6
▪ 체육 부문	3,376	4,089	4,419	5,061	6,335	17.0
▪ 문화재 부문	3,501	3,809	3,977	4,300	4,949	9.0
▪ 문화및관광일반 부문	1,864	1,928	2,152	2,162	1,969	1.4
▪ 정보통신 부문	-	-	-	234	-	-
▪ 일반행정 부문	-	-	-	506	-	-

###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난 5년간 재정투자 성과

- 문화체육관광분야 총 재정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6.9% 증가하여 2005년 2조 6,324억원에서 2009년 3조 4,430억원에 이룸.
  - 일반예산 : ('05) 1.51조원 → ('09) 2.12조원(연평균 8.8% 증가)
  - 기금예산 : ('05) 1.12조원 → ('09) 1.33조원(연평균 4.3% 증가)
- 전체적으로 문화및관광 분야 재정의 기금의존도는 '05년 42.6%에서 '09년 38.5%로 낮아지고 있으나 기금의 절대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 증가함.

<그림 1> 문화체육관광 부문별 재정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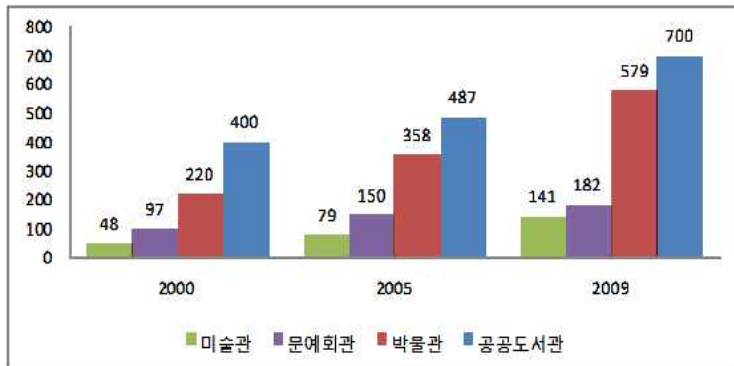
- '05-'09년 기간동안 부문별로 보면 체육, 문화재, 관광 부문의 재정규모가 각 연평균 17%, 9.0% 그리고 8.6%로 전체 평균 증가율을 상회함.
  - 그 결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체육과 관광 부문의 구성비도 '05년대비 '09년 6.9%p와 1.7%p 증가한 반면, 문화예술 부문의 비중은 6.9%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체육과 관광 부문의 예산증가는 기금예산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각 부문의 기금수입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큼.
-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에 있어서 산업육성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화산업 부문과 관광산업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8.7%와 10.8%로 전체 평균 6.6%보다 높게 나타남.

### 3. 재정투자 성과 평가

□ 2000년대에 들어서 문화체육관광예산은 정부 예산 총액의 1% 전후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정책을 통하여 고용, 성장 등 산업발전에도 기여함.

-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행사 지원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 (문화시설 확충)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09년 총 1,602개소 (2000년대비 2배 이상)를 설치운영

<그림 2> 문화기반시설 확충 추이



- (문화향유 기회 증대)각종 축제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축제는 지난 2009년 921건 개최, 약 2,966만명이 관람하였으며, 관람객수 만명당 국고지원액은 236만원으로 2000년 대비 1.7배 증가하였음.

<표 2> 지역축제 성과 지표

구분	2000	2005	2009
지역축제개최(건)	749	1,143	921
지역축제관람객수(만명)	1,170	3,274	2,966
국고지원액(억원)	16	25	70

- 콘텐츠 육성, 저작권 보호 등 문화산업 육성
  - (콘텐츠산업 발전 성과) 영화, 방송영상, 온라인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은 제작여건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등 전략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획기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수출 산업화되고 있음.
    - 국산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00년 35.1% => 09년 48.8%
    - 2009년 방송콘텐츠 수출은 2000년 대비 14배 증가, 온라인게임은 2008년 10억 달러를 초과함.
  -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을 제외하고는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
    -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의 자생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3D 등 차세대콘텐츠의 발굴 등)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

- (저작권보호정책의 성과) 기술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의 신속한 보완과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환경 구축을 위해 저작권 교육 강화와 불법저작물 단속으로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 저작권 교육 참가자의 저작권 인지도: 06년 69% => 09년 97.8%

- 불법저작물의 정품시장 침해율 : 06년 30.8% => 09년 21.6%

- (문화산업 지원체계 정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분산된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문화산업 지원조직을 통합을 통하여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 문화산업 관련 법체계 변화 내용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09.8.22 시행) : 완성보증, 콘텐츠 가치 평가제도, SPC,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등 제도 도입

- 콘텐츠산업진흥법('10.5.19 국회 통과) : 콘텐츠산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육성체계 및 융합콘텐츠 활성화 기반 마련

- 문화산업 지원 기관 통합 : 한국콘텐츠진흥원 출범('09.5.7, 1,912억원, 188명)

□ 관광산업 육성 성과

-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광역관광지 개발, 지역 특성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의해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

- 외래관광객 수 : ('06) 616만명 → ('09) 782만명 (26.9% 증가)

- 의료관광, MICE 관광 등 융복합형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인프라·시설확충 중심의 정책에서 프로그램 보완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이 주요 과제로 등장

□ 문화재 보호 및 관광자원화

- 문화재의 체계적 발굴 및 보존, 전시를 통해 국민의 문화 자긍심과 문화재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국민들의 체험기회 신장에 기여

□ 체육부문

- 국가대표선수 양성 등 전문체육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로 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합순위 세계 7위와 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종합순위 5위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 특히, 올림픽 우승 종목의 다변화(야구, 빙속, 피겨스케이팅 등)를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 하계올림픽 세계 종합순위: 04년 아테네올림픽 9위 => '08년 베이징올림픽 7위

- 동계올림픽 세계 종합순위: 06년 토리노올림픽 7위 => '10년 밴쿠버올림픽 5위

<표 3> 체육부문 재정투자 주요 성과

구분	2000	2005	2009
공공체육시설(개)	4528	7862	13968
체육시설면적(m <sup>2</sup> /인)	1.03	1.92	2.88
생활체육지도자(명)	789	917	1550
체육동호인 클럽(천개)	42	77	97

- 지속적인 국제경기대회의 유치와 경기시설의 확충,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도자 배치 확대 등으로 국민 생활체육활동이 활성화되어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4. 재정투자 개선과제

##### □ 중앙정부의 지방 문화복지 재정투자 지원의 급증

- 지난 10여년 동안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과 관련된 문화복지시설이 빠르게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
- 소득향상과 수요자 니즈의 다양화 고급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복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문화복지 제고 차원에서 중앙정부/지자체/민간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 편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액 증가율은 연평균 21.5%로 전체 증가율 6.6%를 크게 초과
- 그 결과 09년 문화체육관광 예산규모의 34%인 9,770억원규모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배정, 이는 06년 23.6%에 비해 10.4% 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표 4> 문화체육관광부문 예산에서 차지하는 지방 지원예산 규모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07예산	'08예산	'09예산	연평균 증가율
재정총계(a)	22,284	23,073	22,660	26,354	28,746	6.6
○ 지방지원예산(b)		5,442	6,281	7,490	9,770	21.5
(비중, b/a, %)		23.6	27.7	28.4	34.0	

##### □ 높은 기금의존도로 인한 재정운용의 유연성 부족

-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국가재정은 기금의존도가 높아 우선 순위 에 따른 탄력적인 예산 배분이 어려워지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만을 기준으로 보면 기금의존도는 2005년 44.7%에서 2009년 41.6%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 부문 전체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6.9%에 이르지만 문화예술부문의 증가율은 2.4%에 불과함.
- 기금은 법·제도적으로 기금조성목적에 적합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출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예산에 비하여 재정운용의 유연성이 낮음.
  - 관광과 체육 부문의 경우 기금 재정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기금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확장적 재정운용이 가능하나, 문화예술부문은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함.
  - 특히, 문화예술부문 중 문화산업의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아 기타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수년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 문화예술복지 부문의 양적 성장과 질적 내실화의 조화 부족

- 문화기반 시설 인프라는 지속 확충되고 있으나 시설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전시, 교육 등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아 시설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 기관 설립 등 하드웨어적인 양적 확대 중심의 재정투자에서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확충 등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질적 내실화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시장친화적인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지원정책의 기준 부재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 중 일부는 시장친화성이 부족하거나 시장 개입적 방식으로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게임 등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에 대해서도 전략적 육성차원에서 지속 지원되고 있음.
-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산업 육성정책 개발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원칙적인 기준이 필요함.

□ 관광부문 산업화를 위한 정책 수단 개발 부족

- 관광산업 진흥정책이 관광인프라 구축(관광단지 개발 등), 외래관광객 유치 등에 편중되어 있어 관광단지의 관광서비스 질 제고, 오락 프로그램 확충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개발 필요
  - 이는 전통적으로 관광정책이 공급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제는 관광인프라를 확충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관광 서비스·프로그램 확충을 보완해야 할 시점임.
- 관광산업진흥정책은 국민들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내수 시장 육성과 관광콘텐츠 개발, 융복합형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함.

□ 국제경기대회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로 인한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활용과 지역간 불균형적인 자원배분 등이 발생할 우려 증가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경제성이 부족한 대회 유치로 인한 비효율 증대, 대회 개최 후 체육경기시설의 활용도 저하로 재정 효율성을 지속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경기대회는 유치단계에서 개최 및 사후관리의 전과정에 걸쳐 국민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제경기대회 승인심사 절차 개선, 법제화 등의 제도개선안이 필요.

## II. 향후 정책방향 및 10-14 재정투자 중점

### 1. 정책 기본방향

#### □ 문화향유권 강화를 통한 문화복지 향상

- 문화, 예술, 체육 등 문화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강화함. 문화복지 소외 지역과 문화복지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으로 배려
  - 문화, 체육 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시설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설의 양적 확충 위주의 재정운용에서 시설투자와 함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확충노력을 통해 시설 활용도와 이용효율을 제고해 나가야 함.

####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 산업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경제성장, 수출증진,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화와 정보화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부문의 시장통합에 대응하여 관련 분야 경쟁력 강화와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 □ 역할 분담을 통한 중앙의 재정부담 완화

- 국민 문화복지에 있어서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문화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복지의 효율적인 확산을 도모
-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국가단위의 사업,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지원, 산업적 기능 강화 등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화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효율화를 추진
-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복지사업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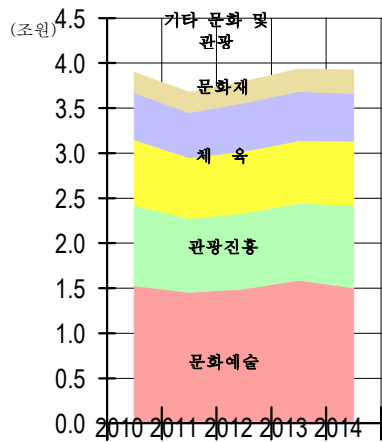
#### □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적 추진

- 문화체육관광 재정투자 부문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을 활성화하여 민간 자본 및 경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문화예술복지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BTL, BOT, BTO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경영, 경영책임제, 민영화 등을 위한 시장화 테스트(market test) 제도 등을 도입
- 중앙정부의 재정투입이 이루어지는 각 부문에 대한 제도개선과 운영합리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을 개선해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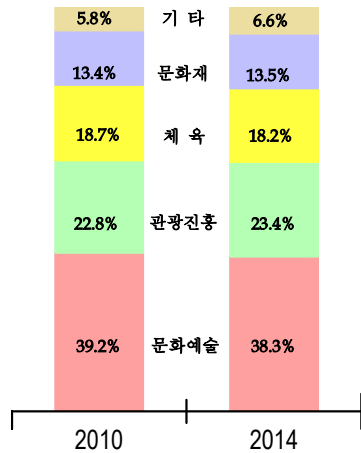
<표 5>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 목표설정(5개년)

구분	단위	2010	2014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각각)	도서관 개소	750	950
	박물관 개소	730	900
	미술관 개소	150	200
	문예회관 개소	190	230
문화콘텐츠산업 시장규모	백만원	73,074,778	89,992,344
문화콘텐츠산업 고용규모	명	570,578	632,205
관광산업 발전 (국민관광총량) (외래관광객수) (관광수입)	억일	4.0	5.2
	만명	850	1,200
	억불	95.7	144
생활체육 참여율 (주2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	35	40
문화체육관광 민간투자 (BTL 지원 규모)	개소	18	33
	억원	92	215

<그림 3> 재정규모 추이



<그림 4> 재원배분 구조



## 2. 10-14년 재정투자 중점

### □ 국가 상징 문화시설 건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미술관서울관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품격있는 국가상징 문화 공간 조성
- 생활권 내 문화 프로그램 지속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체험 기회도 확대

### □ 문화산업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시장친화적 지원 강화

- 3D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R&D 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개척 등 지원
  - 문화 콘텐츠산업 매출액(조원) : ('10) 74 → ('11) → 80 → ('14) 102
- 콘텐츠 건전유통 및 저작권 보호 강화 등 콘텐츠 시장구조 선진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 □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MICE 관광, 의료관광, 생태관광 등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

- 외래관광객수(만명) : ('10) 860 → ('11) 940 → ('14) 1,200만명

\*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 문화·역사·생태 등 지역 특색·테마에 맞는 新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3대문화권, 4대강유역, 새만금 관광단지 등 개발 지원

- G20 정상회의 등 국가적인 행사에 대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전문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생활체육 시설·프로그램 지속 확충 등 체육활동 기회 보장

- 생활체육 참여율(주 2회 이상) : ('09) 35% → ('14) 40% 이상

-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선별적 개최 지원 및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훈련여건 개선 등

### Ⅲ. 제도개선 및 재정운용효과 제고 방안

□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유연성 강화

-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탈피, 중기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점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투입분야 중에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부문 등에 대해서는 투입규모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 가야 함.

-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산 편성 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여 문화체육관광 부문 전체 예산에서 기금의존도가 낮은 부문에 대한 균형적인 재원배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예산의 총규모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존도가 높은 부문의 기금편입이 증가함으로써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술부문 예산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임.

□ 중앙과 지방의 문화복지 시설투자 역할 분담 원칙 확립

- 중앙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필요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담당하고, 지역별 공공 문화복지 시설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 건립 기준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시설투자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투입을 유도

- 지역별 문화예술 시설투자는 민간자본 활용을 장려하고, 중앙정부는 연간 지원쿼터를 설정하여 재정자립도, 시설 및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지원

- 지역 문화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적정규모의 검증, 지원기준, 지원한도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제정(중앙 재정에서

지원하여 신규로 건립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사례로부터 실수요 규모에 대한 추정에 기초한 시설규모 설정 필요)

- 전국적인 관련시설 분포, 균형적인 배치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문화복지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반영
  - 비산업적 시설인 문화체육 등 복리후생시설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보다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균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생활체육시설 등은 광역 또는 기초 단체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지역별 배분을 기본 원칙 설정
- 기존에 건립된 지역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시, 공연 등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지원, 민간 위탁경영 유도 등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여 비효율성 제거
  - 문화예술복지 정책이 제1단계(인프라 중심의 재정투자), 제2단계(인프라 + 프로그램 및 콘텐츠 투자), 제3단계(프로그램 및 콘텐츠 투자)의 3단계 발전 경로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제2단계에 들어서야 하는 시점
  - 특히, 시군지역에도 문화, 공연, 전시 등 잠재적인 수요는 존재하지만 시장수급에 의해서는 공급이 제약되기 때문에 문화향유권 강화 차원에서 지역 문화시설을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 충족, 시설의 활용도 제고, 문화예술 공급 부문의 발전에 기여
  - 전국 공공문화복지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문화향수권 정책에 반영

#### □ 재정투자구조의 개선

- 민간단체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 부진사업 등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추가적인 재원 투입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재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 추진
  - 다수의 민간보조 단체가 관련되어 있는 문화부 예산구조상 어려운 추진과제이지만, 단체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공연공간 조성 등 공동인프라 제공 등 간접적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단체들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 보조사업이 총지출규모의 2/3수준(민간보조 32%, 지자체보조 34%) 少額多數의 사업구조(지원단체수 1,967개, 이중 2천만원 미만이 55%)
  - 지원원칙 수립 및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그간 제기되어 온 민간보조사업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소액·다건식 지원으로 정책효과 미흡, 관행적·연례적 지원, 성과평가와 예산편성 연계 부족 등
  -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도 성과평가(국민 문화향유권 제고 기여도 등)를 통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생력을 강화 필요
-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경우 게임산업 등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고, 새롭게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3D 콘텐츠, 디지털 방송 콘텐츠 등의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
-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우, e-Book의 산업의 활성화 추세에 발맞추어 신설되는 도서관은 콘텐츠 특성에 적합한 전자도서관에 적합한 시설로 유도하고, 기존 도서관의 경우도 e-Book 등 전자도

서관으로 전환을 추진

- 문화예술부문은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 분야와 산업육성의 기능을 갖는 문화콘텐츠 분야로 구분하여 특정분야로 재정투자가 쏠리는 현상 방지
  - '09년 문화콘텐츠부문 예산은 6,461억원으로 문화부 총예산(2조 8,405억원)의 22.7%, 문화예술부문 예산(1조 1,185억원)의 57.8%를 차지

□ 민간의 문화, 관광 서비스공급 능력 확대를 통한 고용촉진

- 국민경제의 성장과 고용촉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신산업부문을 중점적으로 발굴 및 육성.
  - 제조업 부문의 자동화와 해외투자 확대에 의하여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은 고용유발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국제수지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고용 및 성장 잠재력 높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신성장 분야를 발굴하여 재정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문화예술벤처, 관광벤처 제도를 도입하여 이 분야의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민간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시스템 도입 필요
  - 기존의 벤처제도는 주로 기술중심의 지원제도로 IT 산업 육성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문화예술벤처는 문화예술부문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유능한 창

의적인 인재의 문화예술경영으로의 진입을 촉진

- 관광벤처는 실내테마파크, 테마형 숙박산업, 공연관광, MICE관광,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산업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국민 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화, 체육, 관광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함.
-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일지라도 시장기능이 도입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유치 또는 민관합작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BTL, BTO, BOT 등 다양한 방식의 민간참여가 가능한 사업 분야를 발굴
  - 민간위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켓테스트(market test) 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서비스 시장을 확대

□ 시장친화적 문화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

- 게임, 영상 등 장르 중심의 육성정책은 한번 편성되면 관행화되어 3D 콘텐츠 등 새로운 재정투자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예산항목의 변경이 어려우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 문화콘텐츠진흥 재정 중 게임, 영상 등 장르별 지원 구분을 폐지하고 정책범주별로 구분하여 각 정책범주 내에서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하여 지원정책을 수립
  - 정책범주를 문화콘텐츠 진흥 또는 경쟁력강화(공급자 육성), 시장창출(수요), R&D, 문화산업 인프라구축, 기타(산하기관 운

영비, 제도개선, 정책연구 등)로 구분할 경우 특정 장르 또는 기술 분야 중에서 보다 유망한 쪽으로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게임산업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는 온라인 게임으로 시장이 재편된지 오래이며, 선도업체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모바일 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은 각 기능별 지원정책에 포함
- 장르에 대한 제작비 지원 등은 창의적인 신생벤처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될 필요가 있음. 반면에 게임인력 양성이나 연구개발 지원 등은 콘텐츠 인력양성 항목과 콘텐츠 연구개발 항목에서 흡수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장르별 지원 예산항목의 조정은 기존 수혜집단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전체 예산규모의 축소가 아니므로 기능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우려할 필요가 없음.
- 결론적으로 콘텐츠산업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특히 시장의 가격결정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초래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함.

□ 문화예술공연 부문 수요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 문화예술공연 부문은 국민의 문화향유권 강화와 문화소비의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발전의 필요성이 크지만 협소한 시장규모, 공급부문의 낮은 경쟁력 등으로 인해 자생적인 성장토대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공연 부문이 시장을 형성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등의 공연단운영에

대한 기부, 문화예술지원 활동 등에 대한 세제감면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토론 주제2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 효율화 방안

## I. 문제의 제기

### 1. 국제경기대회 유치 성과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스포츠는 어떤 분야보다 국제적인 경쟁에서 국력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냈음
  - 특히 대한민국 국호로 정식 참가한 1948년 런던올림픽부터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을 포함하여 세계 스포츠인의 최고 경쟁 무대인 올림픽대회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왔음
- 이러한 성과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며, 국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해왔음
  - 대한민국 브랜드 인식 강화와 국민의 자긍심 고취 등의 효과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에서 거둔 성적은 물론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대회 등에서 보았던 것처럼 국제경기대회의 국내 유치를 통해서도 발현됨
-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개최된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나아가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의 개최를 통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고 응원문화 등을 통해 시민의식을 선진화 시키는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등 국제경기대회의 유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인식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됨

###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증가

-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져 왔음.
  -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의 개최를 통한 국민들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의 수단으로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시작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 개최는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등 여러 가지 이점을 향유할 수 있겠지만 경기장건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실제로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통해 해당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시설의 확충, 도로 등 사회 인프라의 개선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후생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체육대회 개최 성과에 고무되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최근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뛰어 들고 있음.
- 주요 사례를 보면 2010년 전남F1코리아그랑프리,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유치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임

###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문제제기

-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로 인해 지역개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이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해당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함. 결국 국제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감.
- 따라서 특정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여부는 반드시 투입비용대비 경제적 또는 사회총후생적 성과의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음. 즉 유치 가능한 국제대회 중에서 국민경제적 또는 사회총후생의 관점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여러 대안들 중에서 보다 나은 대안이 선택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과도한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개최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한정된 국가재정의 지역 간 불균등한 배분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 연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체육 관련예산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만약 어떤 시점에서 특정지역이 특정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였을 때 다음 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경제성 있는 국제경기대회 유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한정된 체육관련 예산(기금포함)이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집중될 경우 여타 체육관련 재정지출 기회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 개최가 야기하는 다른 문제는 해당 경기대회 개최 이후 체육시설의 사후 활용도가 낮아 방치하거나 유지관리비용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음.

- 결론적으로 국제체육대회 유치는 사전적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성 등 유불리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국제경기대회의 유치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국내 국제경기대회 개최실적 및 현황분석을 통하여 정책현안과제를 도출하고 경제성 있는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II. 국제경기대회 국내 개최실적

### 1.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역대 개최지

#### 가. 국제경기대회의 종류 및 유형

- 국제경기대회는 포괄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간에 벌어지는 모든 체육경기대회를 지칭하며 형태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종목을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경기대회’와 한 종목의 스포츠에서 국가 간에 경쟁하는 ‘종목별대회’로 구분됨.
  - ‘종합경기대회’와 ‘종목별대회’는 그 대상과 규모, 지역, 계절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간의 교류 대회와 각종 초청대회 등을 포함하면 매우 다양한 수의 국제경기대회가 있으며 우리나라 체육계에서도 대한체육회 및 각종 협회, 각 팀별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경기대회를 주최 혹은 참가하고 있음.
  - 국제경기대회 중 종합경기대회는 올림픽경기대회가 그 정점에 있고 올림픽은 계절별로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대상별로는 장애인올림픽과 유스올림픽이 있으며 올림픽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별 혹은 대상별로 개최되는 대회임.
  - 지역별 구분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하거나 개최할 수 있는 대회는 하계 및 동계아시안게임과 동아시아대회가 있음.
  - 대상별 구분에 속한 종합대회는 대학생 연령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즈대회 등 참가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개최되는 대회와 군인대상 마스터즈대회, 지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 및 동계 스페셜올림픽 등이 있음.

〈표 1-1〉 종합국제경기대회의 종류

구 분	대 회 종 류
올림픽	하계올림픽대회, 동계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 유스올림픽
지역별 종합대회	하계아시안게임, 동계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동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대상별 종합대회	-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청년대상) - 마스터즈대회(노인대상세계대회) - 군인대회(군인대상세계대회) - 스페셜올림픽 하계 및 동계대회 - 월드컵(GAISF 주관 비올림픽종목대상)

- 국제경기대회 중 종목별대회는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를 정점으로 남녀대회, 연령별대회, 지역별대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최됨.
  - 축구의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의 주관으로 남자월드컵, 여자월드컵, 남자 20세이하월드컵, 여자20세이하월드컵, 남자17세 이하 월드컵, 여자17세이하월드컵, 컨페더레이션스컵, 클럽월드컵, 풋살월드컵, 비치사커월드컵 등이 있으며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AFC 아시안컵대회 등이 있음.

나. 역대 하계올림픽 개최지

□ 1896년 근대올림픽이 부활하면서 제1회 대회는 고대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아테네)에서 개최된 후에 지금까지 하계올림픽대회 개최 경험이 있는 국가는 2016년 개최 예정지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을 포함하면 모두 19개국임.

○ 이들 국가 중 2회 이상 개최한 국가는 네 번을 개최한 미국을 포함, 3회의 영국(2012년 예정 포함)과 2회 개최한 프랑스, 독일, 호주, 그리스 등 6개국뿐이며 그리스가 올림픽 발상지의 예우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모두 강대국들뿐임.

<그림 1-1> 하계올림픽 복수 개최국



○ 2회 이상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국가 중 가장 빠른 기간 동안 연속 개최를 한 국가는 미국으로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데 이어 1996년 아틀란타에서 개최하여 12년 만에 올림픽을 동일 국가에서 개최된 바 있음.

○ 이러한 데는 미국의 시장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대는 향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 1-2> 역대 하계올림픽 개최지

대회	개최국	년도	개최도시	참가국	참가선수	비고
1	그리스	1896년	아테네	13	245	
2	프랑스	1900년	파리	24	997	
3	미국	1904년	세인트루이스	13	689	
	그리스	1906년	아테네	공식 대회 아님		*근대올림픽 탄생 10주년 기념
4	영국	1908년	런던	22	2,008	
5	스웨덴	1912년	스톡홀름	28	2,407	
6	독일	1916년	베를린(예정)	전쟁으로 취소		
7	벨기에	1920년	안트베르펜	29	2,626	
8	프랑스	1924년	파리	44	3,089	*프랑스 파리 두 번째 개최
9	네덜란드	1928년	암스테르담	46	3,014	
10	미국	1932년	로스앤젤레스	37	1,408	*미국 두 번째 개최
11	독일	1936년	베를린	49	4,066	
12	일본	1940년	도쿄(예정)	전쟁으로 취소		
13	영국	1944년	런던(예정)	전쟁으로 취소		
14	영국	1948년	런던	59	4,099	*영국 두 번째 개최
15	핀란드	1952년	헬싱키	69	4,525	
16	호주	1956년	멜버른	67	3,184	
17	이탈리아	1960년	로마	83	5,348	
18	일본	1964년	도쿄	93	5,140	
19	멕시코	1968년	멕시코시티	112	5,530	
20	서독	1972년	뮌헨	121	7,123	*독일 두 번째
21	캐나다	1976년	몬트리올	92	6,028	
22	소련	1980년	모스크바	80	5,217	
23	미국	1984년	로스앤젤레스	140	6,797	*미국 세 번째(LA 두 번째)개최
24	대한민국	1988년	서울	159	8,465	
25	스페인	1992년	바르셀로나	169	9,956	
26	미국	1996년	아틀란타	197	10,320	*미국 네 번째 개최
27	호주	2000년	시드니	199	10,651	*호주 두 번째 개최
28	그리스	2004년	아테네	202	11,099	
29	중국	2008년	베이징	204	10,500	
30	영국	2012년	런던	예정		*영국 런던, 세 번째 개최 예정
31	브라질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예정		

### 다.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지

〈표 1-3〉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지

- 1924년 시작된 동계올림픽은 2014년 개최 예정인 러시아를 포함하여 모두 11개국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11개국 중 8개국이 2회 이상 중복 개최될 정도로 선진국 일부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개최지의 중복 원인은 동계스포츠의 발달이 제한적인 국가에서 일어나는 측면이 있으며 대규모 대회를 치르기 위한 동계스포츠 시설의 설치가 다른 국가에서는 쉽지 않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동계올림픽을 가장 많이 개최한 국가 역시 미국이었으며 프랑스가 3회였고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은 2회씩 개최한 바 있음.
- 1984년 대회를 개최한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최국이 모두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동계올림픽의 개최할 여건은 국력에 더욱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1-2. 동계 올림픽대회 복수 개최국



대회	개최지	년도	개최도시	참가국	참가선수	비고
1	프랑스	1924년	샤모니	16	258	
2	스위스	1928년	장크트모리츠	25	464	
3	미국	1932년	레이크플래시드	17	252	
4	독일	1936년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28	646	
5	일본	1940	삿포로			전쟁으로 취소
6	이탈리아	1944	코르티나담페초			전쟁으로 취소
7	스위스	1948년	장크트모리츠	28	669	*스위스 두 번째 개최
8	노르웨이	1952년	오슬로	30	694	
9	이탈리아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32	821	
10	미국	1960년	스쿼벨리	30	665	*미국 두 번째 개최
11	오스트리아	1964년	인스브루크	36	1091	
12	프랑스	1968년	그르노블	37	1158	*프랑스 두 번째 개최
13	일본	1972년	삿포로	35	1006	
14	오스트리아	1976년	인스브루크	37	1123	*오스트리아 두 번째 개최
15	미국	1980년	레이크플래시드	37	1072	*미국 세 번째 개최
16	유고슬라비아	1984년	사라예보	49	1272	
17	캐나다	1988년	캘거리	57	1423	
18	프랑스	1992년	알베르빌	64	1801	*프랑스 세 번째 개최
19	노르웨이	1994년	릴레함메르	67	1737	*노르웨이 두 번째 개최
20	일본	1998년	나가노	72	2176	*일본 두 번째 개최
21	미국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77	2399	*미국 네 번째 개최
22	이탈리아	2006년	토리노	80	2508	*이탈리아 두 번째 개최
23	캐나다	2010년	밴쿠버	83	2629	*캐나다 두 번째 개최
24	러시아	2014년	소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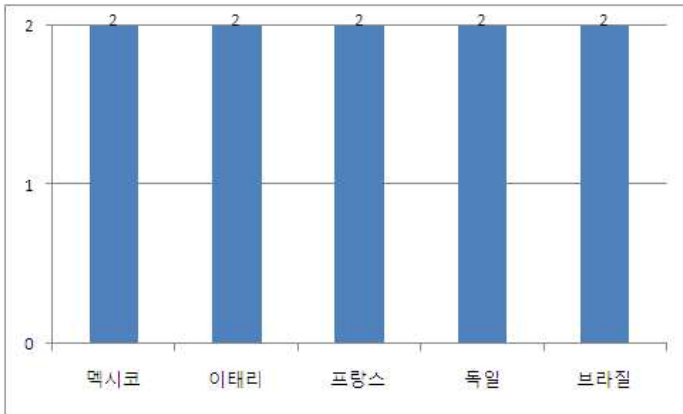
### 라. 역대 FIFA 월드컵 개최지

- 축구 월드컵은 1930년도 우루과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그 후 4년간 주기적으로 개최되어 2014년 개최 예정인 브라질을 포함하여 모두 15개국에서 개최된 바 있음.
- 축구 월드컵대회는 단일 종목으로 다수의 대규모 경기장 사용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도시별 개최가 아닌 국가별 축구협회의

주도로 개최하게 되어 있어 개최국의 한 도시로 개최도시를 한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명을 사용하여 대회를 표기함.

- 지금까지 월드컵을 중복 개최한 국가는 2014년의 브라질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등 모두 5개국이며 이들 모두 두 번을 넘어 개최한 바는 없음.
- 올림픽은 개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위주로 개최된 바 있으나 월드컵은 축구 종목의 실력이 뛰어난 국가가 주로 개최하는 경향이 있으며 제1회 대회가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이유도 이러한데 기인함.
-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퇴색되어 대륙별 순환원칙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대회에 대한 성공여부가 이 원칙을 고수하게 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1-3. 월드컵대회 복수 개최국



<표 1-4> 역대 FIFA월드컵 개최지

대회	연도	개최국	참가국수	비고
1	1930년	우루과이	13	
2	1934년	이탈리아	16	
3	1938년	프랑스	16	
4	1950년	브라질	16	
5	1954년	스위스	16	
6	1958년	스웨덴	16	
7	1962년	칠레	16	
8	1966년	잉글랜드	16	
9	1970년	멕시코	16	
10	1974년	서독	16	
11	1978년	아르헨티나	16	
12	1982년	스페인	24	
13	1986년	멕시코	24	*멕시코 두 번째 개최
14	1990년	이탈리아	24	*이탈리아 두 번째 개최
15	1994년	미국	24	
16	1998년	프랑스	32	*프랑스 두 번째 개최
17	2002년	대한민국, 일본	32	
18	2006년	독일	32	*독일 두 번째 개최
19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32	
20	2014년	브라질	32	*브라질 두 번째 개최

마. 역대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

- 1959년부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28회 대회까지 총20개 국가에서 개최되었으며 중복개최한 나라는 이탈리아가 4회 개최를 포함하여 불가리아, 소련, 일본, 중국, 한국이 각 2회씩 개최하여 총5개국에서 중복 개최함.
- 한국이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중복 개최하는 여섯 번째 국가가 되게 됨.

- 1960년부터 개최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15년 27회 대회까지 총16개 국가에서 대회를 주최한 바 있으며, 동계대회에도 이탈리아가 총6회를 개최하여 가장 빈번하게 개최한 국가임.

〈표 1-5〉 역대 하계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하계 유니버시아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연도	개최국	개최도시	대회	연도	개최국	개최도시
1	1959	이탈리아	토리노	1	1960	프랑스	샤모니
2	1961	불가리아	소피아	2	1962	스위스	빌라스
3	1963	브라질	포트알레그레	3	1964	체코슬로바키아	슈펜틀레류프린
4	1965	헝가리	부다페스트	4	1966	이탈리아	세스트리에
5	1967	일본	도쿄	5	1968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6	1970	이탈리아	토리노	6	1970	핀란드	로바니에미
7	1973	소련	모스크바	7	1972	미국	레이크플레시드
8	1975	이탈리아	로마	8	1975	이탈리아	리비노
9	1977	불가리아	소피아	9	1978	체코슬로바키아	슈펜틀레류프린
10	1979	멕시코	멕시코시티	10	1981	스페인	하카
11	1981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11	1983	불가리아	소피아
12	1983	캐나다	에드먼튼	12	1985	이탈리아	벨루노
13	1985	일본	고베	13	1987	체코슬로바키아	스트르브게플레소
14	1987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	14	1989	불가리아	소피아
15	1989	서독	뒤스부르크	15	1991	일본	삿포로
16	1991	영국	세필드	16	1993	폴란드	자코파네
17	1993	미국	버펄로	17	1995	스페인	하카
18	1995	일본	후쿠오카	18	1997	대한민국	무주
19	1997	이탈리아	시실리	19	1999	슬로바키아	포프라드
20	1999	스페인	팔마	20	2001	폴란드	자코파네
21	2001	중국	베이징	21	2003	이탈리아	타르비시오
22	2003	대한민국	대구	22	2005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23	2005	터키	이즈미르	23	2007	이탈리아	토리노
24	2007	타이	방콕	24	2009	중국	하얼빈
25	2009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25	2011	터키	에르주룸
26	2011	중국	선전	26	2013	슬로베니아	마리보르
27	2013	러시아	카잔	27	2015	스페인	그라나다
28	2015	대한민국	광주				

- 체코슬로바키아가 슬로바키아가 개최한 1999년 대회를 포함하여 모두 4회를 개최하였고 스페인이 3회,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폴란드 등이 2회씩 개최하여 모두 6개국에서 중복 개최됨.

-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주로 동구를 포함하는 유럽국가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림픽보다는 더욱 다양한 국가에서 대회를 치러오고 있고 미국을 포함하는 아메리카 대륙권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음.
-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이끄는 국제경기대회로 상업성은 배제된 반면 참가자들만에 의한 관심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한 의미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유치는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개최할 수 있는 도시에 한하여 유치를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바. 역대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

□ 하계아시아경기대회는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까지 10개 국가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될 예정임

- 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국가는 태국으로 방콕 시에서만 1966년, 1970년, 1978년, 1998년 등 총4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일본, 인도, 중국 등이 2회 이상 중복 개최했거나 개최할 예정이고, 우리나라는 2014년 인천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태국에 이어 가장 많이 개최하는 국가가 되게 됨.

□ 상대적으로 저개발국가가 많은 아시아대륙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9 개국만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상, 아시아대륙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한 다면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는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너무 빈번한 대회의 개최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상업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대한 비용을 대회 주최를 통해서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표 1-6> 역대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

연도	대회	개최도시	개최국	연도	대회	개최도시	개최국
1951년	1	뉴델리	인도	1986년	10	서울	대한민국
1954년	2	마닐라	필리핀	1990년	11	베이징	중국
1958년	3	도쿄	일본	1994년	12	히로시마	일본
1962년	4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1998년	13	방콕	태국
1966년	5	방콕	태국	2002년	14	부산	대한민국
1970년	6	방콕	태국	2006년	15	도하	카타르
1974년	7	테헤란	이란	2010년	16	광저우	중국
1978년	8	방콕	태국	2014년	17	인천	대한민국
1982년	9	뉴델리	인도				

## 2. 국내 국제경기대회 개최실적

### 가. 대형 국제경기대회 개최 현황

□ 국내에서 대형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아시안게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후 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1997년 무주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린 이후, 2002 부산아시안게임, 2002 한일월드컵,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이 연이어 개최 된 바 있음.

○ 태권도 중주국으로서 1973년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1975년과 1985년과 1989년의 세계대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2001년에는 제주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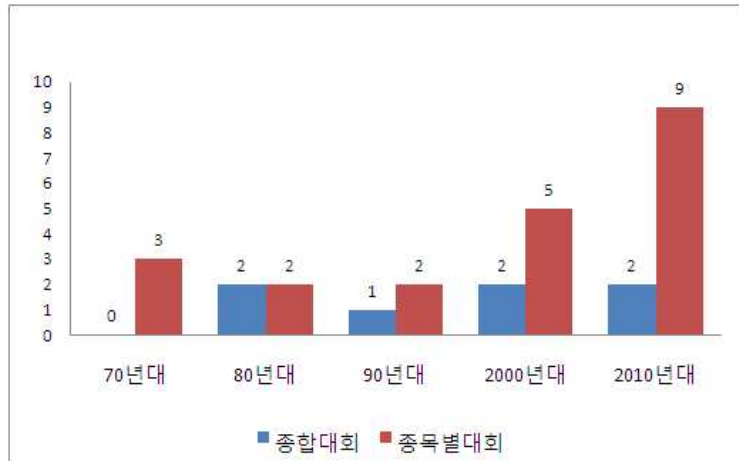
○ 태권도를 제외하면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는 197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서울의 태릉사격장에서 개최된 것이 처음이었으며 이때는 단일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주화, 기념우표가 발매될 정도로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됨.

○ 그 후 1990년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1999년 세계펜싱선수권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간헐적으로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가 서울을 중심으로 개최되었음.

○ 그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세계적인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개최의 빈도가 빈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최근에는 서울 이외의 도시에서 국제경기대회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6년 부산세계볼링선수권대회,

2009년 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 2009년 울산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의 세계선수권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회의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여겨짐.

그림1-4. 대형국제경기대회 개최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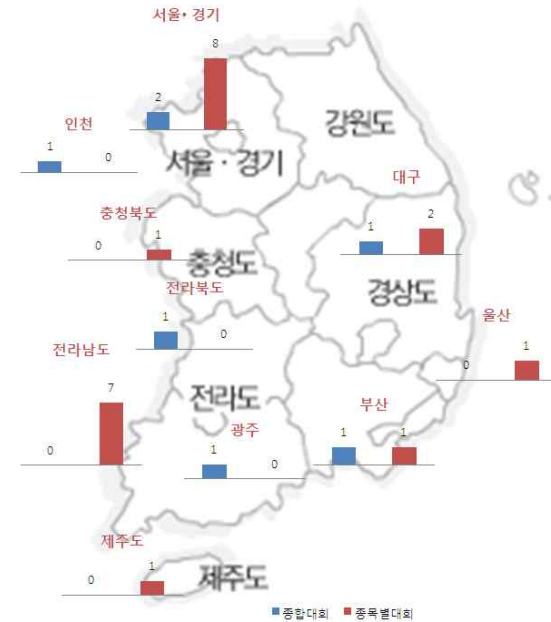
주: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70년대 2회, 80년대 2회, 2000년대 1회 포함

나. 대형 국제경기대회 국내 유치 현황

□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10년 이후에는 대형국제경기대회의 유치가 지난 30-40년에 비해 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며 국제경기의 다양성면에서도 과거와 비교하여 매우 많은 종목과 형태의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2011년에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대구광역시는 이 대회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이며 2014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에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개최가 확정되어있어 이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당 지자체는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여 준비하고 있음

그림1-5. 대형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 대회 지역적 분포



주: 전국적으로 개최된 2002월드컵 제외.

- 단일종목으로는 2010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F1 자동차경주대회는 2016년까지 연속해서 개최될 예정에 있으며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되어 있음.

- 이들 경기 외에 각 지자체에서는 대형 및 중형 규모의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임.

#### 다. 일반 국제경기대회 개최 현황

□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해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그 종류와 규모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규모 국제대회를 포함해서 2008년에 72회, 2009년에는 82회에 이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횟수는 적지 않으나 이러한 국제대회는 대부분 초청형식의 대회로 그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없음.

- 2009년 육상의 경우 대구에서 초청형식으로 개최된 대구국제육상대회와 6번의 국제마라톤대회가 서울, 인천, 대구, 경주 등지에서 개최되었고 축구는 월드컵 예선전이 3회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테니스는 투어형식의 퓨처스대회와 챌린저대회가 각각 6회, 8회 개최한 것을 포함하여 총 21회의 국제대회가 개최된 바 있음.

□ 2009년의 경우 총 82개의 국제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와 두 개국각간에 벌어진 소규모 국제경기대회를 모두 포함함 결과임

- 가장 많은 국제대회를 개최한 지역은 서울로 모두 18개의 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되었고 그다음으로 경기도가 11개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인천이 개최한 6개 대회를 포함하면 총 25개의 대회가 수도권에서 개최되었다고 할 수 있음.

<표 1-7>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국내개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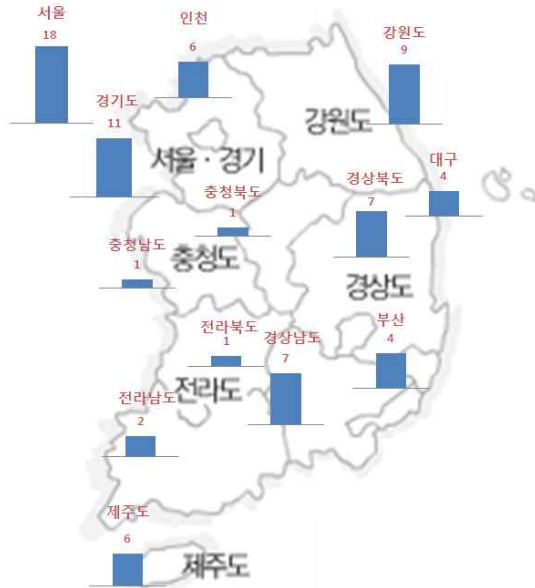
구 분	2008		2009	
	횟수	참가인원	횟수	참가인원
육상	5	65,700	7	328
축구	3	90	3	90
테니스	21	2,542	23	2,370
탁구	1	150	2	300
핸드볼	1	120	1	110
인라인롤러	2	450	2	1,100
유도	2	900	2	500
사이클	1	240	2	240
빙상	2	789	1	180
승마	2	160	4	300
스키	1	400	1	400
사격	1	16	1	58
배드민턴	2	530	3	850
태권도	1	400	1	1,200
트라이애슬론	2	300	3	450
배구	4	208	6	280
정구	2	400	1	300
아이스하키	1	240	1	240
야구	1	300	1	236
펜싱	3	70	1	250
럭비	3	150	2	100
요트	1	300	4	670
스쿼시	1	150	-	-
조정	1	100	-	-
공수도	2	300	1	150
댄스스포츠	3	1,500	3	2,200
산악	1	20	2	200
당구	2	240	4	520
계	72	76,765	82	13,622

자료: 2008-2009 한국의 체육지표

- 그 외에 강원도가 9개의 국제대회를 제주도가 6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의 규모에 비해 많은 대회를 개최한다고 볼 수 있어 이들 지역이 스포츠이벤트의 유치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큼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경상남도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은 각각 7개, 7개, 4개의 국

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라남북도는 각각 2개 및 1개 대회를 충청남북도는 각1개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국제대회를 유치 및 개최한다고 할 수 있음

그림1-6. 2009년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역



주: 한 지역 이상에서 개최된 경기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총 5개의 경기가 한 지역 이상에서 개최되었음.

### 라. 국제경기대회 개최의 의의

□ 국제경기대회 개최는 일반적으로 국민복지 증진,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개최지역의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경제적, 사

회후생적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음. 국제 경기대회 개최의 의의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개최국의 국제스포츠 위상을 제고함. 일반적으로 국제경기대회의 개최는 스포츠 내부적으로는 홈경기의 이점을 활용하여 경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과 더불어 '국제스포츠교류,' '스포츠외교의 장,'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둘째,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개최지역의 경기활성화 효과임. 국제경기대회의 개최는 대회의 참가자와 관람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음.
  - 이러한 효과는 외지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관광산업과 그 궤를 같이하나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스포츠시설이나 국제경기대회 운영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하였을 때 가능함.
- 셋째, 개최국 국민들에게 사회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사회·문화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최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례로 88년 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의 개최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음.
- 넷째, 대형 국제경기대회의 개최는 개최국의 인지도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함. 국가적으로도 국제경기대회의 개최는 국가브랜드의 가치의 제고, 국가위상의 고양 등의 효과 등이 있으며 다만 이러한 효과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수반되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개최가 결정된 대회에

대해서는 확실한 준비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마. 국제경기대회 개최의 정책적 시사점**

- 국내에서 개최된 대형 국제경기대회는 지난 40년간 17개 대회가 개최된 바 있으나 향후에는 2015년까지 이미 10개 대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보면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증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0년 이후에 유치된 F1 자동차경주대회 7회(2016년 대회 포함)를 포함하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은 우리나라의 해당 종목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스포츠의 위상과는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유치 추진 중인 2018년 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대회는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일정한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체계성을 갖고 유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두 번 연속적인 도전의 실패를 고려한다면 그간의 시도가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연속 세 번의 도전이 과도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과 유치를 위해서만 많은 재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음
  
- 월드컵의 경우도 역대 개최국 중 축구에 탁월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2회 이상 개최한 국가가 없다는 점은 개최국 선정과정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더불어 현재 유치가 확정된 대회의 경우에도 반대를 무릅쓰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대회를 유치한 후 국가재정의 지원을 요청하여 사후 승인을 받거나 일부 대회는 사후 승인에도 실패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경우도 있어 대회의 유치에서부터 재정적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등 체계적인 유치 전략이 부재한 경우가 빈번함
  
- 이러한 현상은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관한 국가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없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대회 주최 측과 접촉하거나 국제경기대회 심사승인제도가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접근 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예산을 무한정 배정할 수 없다는 점과 부실한 대회의 유치 및 개최는 국가의 대외 인식을 격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혹은 체육단체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III. 국제경기대회 지원 현황 및 예산구조분석

#### 1.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현황

-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은 국비보조,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일반예산 지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제경기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도로는 50%, 경기장은 30%까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경기대회를 승인받은 대부분의 지자체 혹은 단체는 직접 및 간접 건설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 법률이 정한 상한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산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음.
- 이하에서는 통계자료 활용이 용이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 국민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부문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건립과 조성을 위해서는 대부분 학교운동장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등과 같이 생활체육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기금의 일부는 국제경기대회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음.

- 기금의 국제경기대회 지원금은 대부분 유치위원회의 활동이나 조직위원회의 운영 등 대회운영에 대한 경비로 주로 조달되며 월드컵경기장 조성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면 직접 및 간접 건설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시설을 위해 310억 원이 지원되는 등 시설건설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제경기대회 지원은 2002 한일월드컵을 유치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개최된 모든 국제경기대회에 기금이 지원되고 있음.
  -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1997년 약42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대한 비용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2000년에는 2,025억 원이 지원되었고 그 후는 이전의 지원액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는 700억 원을 넘어선바 있음.

〈표 1-8〉 연도별 국제경기대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6	2007	2008	2009	계
4,173	5,818	17,404	202,543	25,343	31,333	43,781	3,800	5,400	11,440	70,828	421,863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대회 기금지원현황

- 1999년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1999년 강원도에서 개최된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지원은 조직위원회에 총 95억 원이었음.

<표 1-9> 1999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97	'98	'99	계
1999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800	3,907	2,810	9,516
강원동계조직위(직접지원)	800	-	1,200	2,000
강원동계조직위(복권배정금)	-	3,000	310	3,310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대회 기금지원현황

□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 유니버시아드가 처음 국내에서 개최된 것은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8억 원이 지원되었고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에는 조직위원회에 371억 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서는 2008년과 2009년 유치위원회에 3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조직위원회에 기금이 지원될 예정임.

<표 1-10>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97	'03	'08	'09	계
세계유니버시아드	1,811	37,100	1,720	1,800	42,431
무주동계U조직위	1,811	-	-	-	1,811
대구하계U조직위	-	37,100	-	-	37,100
광주하계U유치위	-	-	1,720	1,800	3,520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대회 기금지원현황

□ 2002 한일월드컵대회 지원

- 2002년 한일월드컵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내역을 살펴

보면 월드컵유치위원회 활동을 위해 17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으며 유치가 확정된 후에는 대회개최 경비를 포함하는 월드컵조직위원회 지원에 약 183억 원,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시민들의 공중의식 고양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인 월드컵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한 지원 40억 원과 월드컵경기장 및 파주트레이닝장 건립을 위해 약 2,170억 원 등 총 2,432억 원의 기금이 지원된 바 있음.

<표 1-11> 2002 한일월드컵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계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	1,562	1,909	14,594	197,876	20,658	4,648	243,249
월드컵유치위원회	1,524	198	-	-	-	-	1,722
월드컵조직위원회	-	811	3,494	5,356	4,337	4,348	18,346
월드컵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38	900	1,100	720	1,000	300	4,058
6개 도시(경기장건설)	-	-	10,000	190,300	10,000	-	210,306
파주트레이닝장 건립	-	-	-	1,500	5,321	-	6,821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대회 기금지원현황

□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에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약 367억 원,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15억 원 등 총 402억 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경비 대부분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됨.

□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지원

- 강원도 평창은 지금까지 2010년, 2014년,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동을 해왔으며 2010년과 2017년 대회의 유치를 위한 활동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46억 원이 투입되어 평창동계올림

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유치활동에 사용되었음.

<표 1-12>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98	'99	'00	'01	'02	계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907	1,300	4,667	4,685	26,685	40,246
부산하계조직위원회(기금지원)	907	-	-	-	19,600	20,507
부산하계조직위원회(복권배정금)	-	1,300	4,667	4,685	5,585	16,237
부산아태장애인조직위	-	-	-	-	1,500	1,500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대회 기금지원현황

<표 1-13>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03	'06	'07	계
동계올림픽대회	6,661	2,900	5,100	14,661
평창유치위원회	5,700	2,900	5,100	13,700
대한체육회(평창유치)	961	-	-	961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대회 기금지원현황

□ 2005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지원

- 2005년 개최된 세계청소년축구대회(16세 이하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원을 지원함.

<표 1-14> 2005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06	계
세계청소년축구대회조직위	500	500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대회 기금지원현황

□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지원

-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서는 유치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6년 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유치 확정 후 대회조직위원회에 2009년까지 237억 원, 대구광역시에 육상진흥센터 건립비용 110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313억 원 등 약 55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대회개최년도인 2011년까지 추가지원 될 예정임.

<표 1-15>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06	'08	'09	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400	8,220	46,863	55,483
○대회유치위	400			400
○대구광역시 (육상진흥센터건립)	-	2,000 (2,000)	29,355 (9,000)	31,355 (11,000)
○대회조직위		6,220	17,508	23,728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대회 기금지원현황

- 국제대회의 유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금의 재원조달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적절한 구성과 사용을 위해서도 국제경기대회의 부분별한 유치는 자제되어야함.

나. 2010년 이후 국제경기대회 지원계획

- 2010년 이후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해 국고와 기금의 지원이 약속된 대회는 2020 월드컵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 활동,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활동,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임.

- 지원규모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지원금액은 2010년에만

2020 월드컵 유치에 관한 유치위원회 활동에 30억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활동 35억 원,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지원이 528억 원,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448억 원,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67억 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776억 원,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10억 원 등 총 1,894억 원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지원은 2011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국고와 시비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며 최근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급증하면서 이를 위해 적절한 통제가 있지 않을 시에는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임.
- 따라서 적절한 규모의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표 1-16〉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경기대회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지 원 내 역	2010년 계획
2020 월드컵 유치위원회 지원	3,000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인천시)	77,583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1,000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대한체육회)	3,500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대구광역시/조직위원회)	44,841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충주시)	6,700
2010 F1 코리아그랑프리	52,800
2010년 지원계획 합계	189,424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대회 기금지원현황

## 2. 주요 국제경기대회 예산구조 분석

### 가. 서울올림픽경기대회(1988년) 예산구조

□ 서울올림픽경기대회의 투자비 및 조달내역은 <표 1-17>과 같음.

- 여건조성사업이란 경제활성화와 시민복지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함.

〈표 1-17〉 서울올림픽경기대회 투자비 및 조달내역

(단위: 억원)

항목	합계(비율)	국고	시비	조직위기금	민자
직접투자비	7,473(31.4%)	363	1,143	2,356	3,611
대회운영경비	3,611(15.1%)	167	-	3,444	-
여건조성사업	12,742(53.5%)	5,522	5,659	90	1,471
합계	23,826(100.0%)	6,052	6,802	5,890	5,082
비율	100.00%	25.40%	28.55%	24.72%	21.33%

자료: 2008 하계 올림픽대회 부산유치타당서에 관한 분석

### 나. 부산아시아경기대회(2002년)의 예산구조

□ 부산시의 경우 직간접 기반시설의 설치에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에서 권장하고 여건조성을 위한 홍보 및 기타 시책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음.

- 즉, 각종 투자 및 시책사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시행하였으며, 특별회계 권장사업은 대회 직접시설인 경기장건설, 도로건설 등이 있으며 일반회계 사업은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등이 있음.

□ 직간접투자비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건설에 투입된 직접투자비와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입된 간접투자비 내역 및 재원조달내역은 <표 1-18>과 같음.
- <표 1-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시설의 재원조달은 시비와 국비로 조달되었으며, 그 비율은 시비가 약 64.1%, 국비가 약 35.9%를 차지함.
- 경기장 시설 건설에 투입된 직접투자비는 5,168억 원 규모이며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된 간접투자비는 4,579억 원으로 총9,747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는 대회운영을 위해 지출되었던 1,825억 원(표1-19 참조)의 다섯 배가 넘는 액수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건설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1-18>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직간접투자비 및 재원조달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별	총사업비	비율	연도별투자내역					
				소계	98이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총계	소계	974,714	100.0%	966,173	488,464	177,922	142,955	135,522	21,310
	시비	624,624	64.1%	616,083	277,564	120,922	104,295	101,192	12,110
	국비	350,090	35.9%	350,090	210,900	57,000	38,660	34,330	9,200
직접투자비	소계	516,846	100.0%	514,553	272,851	93,970	80,470	64,329	2,933
	시비	364,456	70.5%	362,163	168,751	71,970	69,830	48,679	2,933
	국비	152,390	29.5%	152,390	104,100	22,000	10,640	15,650	-
간접투자비	소계	457,868	100.0%	424,619	215,613	83,952	62,487	78,084	18,377
	시비	260,168	56.8%	253,102	108,813	48,952	34,467	52,513	9,177
	국비	197,700	43.2%	188,500	106,800	35,000	28,020	18,680	9,200

자료: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백서

□ 대회운영경비

-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대회운영경비는 약 1,82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자체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조달되었다. 자세한 내역은 <표 1-19> 및 <표 1-20>과 같음.

- 집행잔액 609억원은 개최도시인 부산시에 귀속되어 스포츠 발전에 사용되었음.

<표 1-19>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출내역

지출	금액	비율
경기분야	237	13.0%
행사분야	171	9.4%
지원분야	942	51.6%
관리분야	475	26.0%
합계	1,825	100.0%
잔액	609	

자료: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백서

<표 1-20>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달내역

수입		금액	비율
자체수입	광고수입	587	24.1%
	휘장수입	149	6.1%
	복권수입	163	6.7%
	입장수입	151	6.2%
	입촌금	67	2.8%
	기타수입	330	13.6%
소계	1,447	59.4%	
보조금수입	국비보조금	444	18.2%
	시비보조금	338	13.9%
	체육진흥기금	205	8.4%
	소계	987	40.6%
합계	2,434	100.0%	

자료: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백서

□ 지출항목별 구성내역

-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출된 항목별 구성내역을 보면 경기장 건설 등에 투입된 직접투자비가 5,169억 원으로 전체 지출의 42.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예산이 쓰여졌으며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사용된 간접투자비가 4,579억 원으로 32.7%였으며 대회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2,434억 원으로 19.8%로 나타남

<표 1-21>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출항목별 구성내역

(단위: 억원)

항목	금액	비율
직접투자비	5,169	42.5%
간접투자비	4,579	37.7%
대회운영비	2,434	19.8%
합계	12,182	100.0%

자료: 2008 하계 올림픽대회 부산유치타당성에 관한 분석에서 발췌

**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예산 계획**

<표 1-22>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국비	시비	민자	자체조달	비율
총계	액수	49,491	16,210	26,841	3,354	3,086	100.0%
	비율	100.0%	32.8%	54.2%	6.8%	6.2%	
직접비	계	15,812	2,651	13,161	-	-	31.9%
	경기장 신설	5,470	1,641	3,829	-	-	
	경기장 시설보수	79	24	55	-	-	
	대체시설 및 연습장	3,287	986	2,301	-	-	
	문화오락 및 공원	3,136	-	3,136	-	-	
	기타직접투자비	3,790	-	3,790	-	-	
	표지판 정비 등	50	-	50	-	-	
간접비	계	30,593	13,560	13,680	3,354	-	61.9%
	교통망 확충 및 서비스 개선	27,119	13,560	13,560			
	인천항 확장	120	-	120			
	선수촌 건립	2,929	-	-	2,929		
대회운영비	통신시설 건립(MPC,IBC등)	425	-	-	425		
	개폐회식 등	3,086	-	-	-	3,086	6.2%

자료: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인천유치 타당성 조사(2005)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한 인천시의 유치파일 작성시 계획에 따르면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총 4조 9,491억 원의 예산이 필

요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중, 대회에 필요한 직접시설의 건설비가 1조 5,871억 원, 사회간접시설 등 간접시설의 건설비가 3조 593억 원, 대회운영비가 3,086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음.

- 직접투자비는 경기장 신설, 경기장 시설보수, 대체시설 및 연습장 등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대회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산임.
- 간접투자비는 도로와 인천항 확장 및 보수, 선수촌아파트, 통신 시설 등으로 도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50% 국고보조를 가정하였고 인천항 확장 및 보수는 100% 시비, 선수촌은 100% 민간자본을 가정됨.

- 민간자본의 경우 기존의 서울 아시아선수권 아파트(잠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오류동), 부산 아시아선수촌 아파트(해운대구 반여동)는 좋은 위치와 시설, 교통 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 잡고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이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으로 국비 1조 6,210억 원, 시비 2조 6,841억 원, 민자 3,354억 원, 자체조달 3,086억 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국비가 전체 예산의 32.8%, 시비 54.2%, 민자 6.8%, 자체조달 6.2%에 해당됨.
- 이러한 계획은 현재는 주경기장의 추가건설 등으로 인하여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전체 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일 수록 막대한 대회시설 건설비와 간접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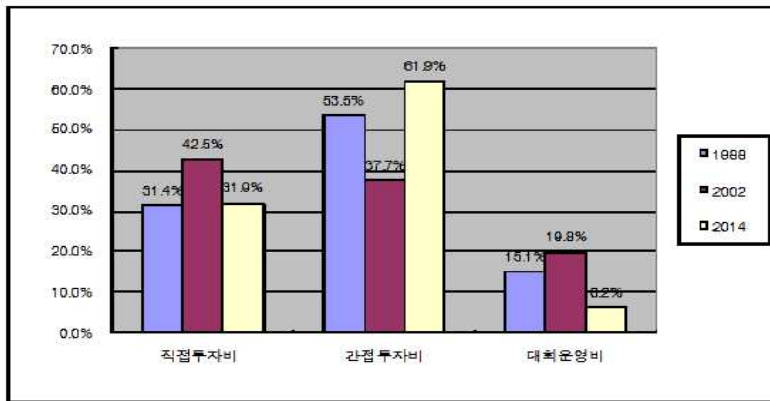
건설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극히 미비한 수준임.

### 3. 정책적 시사점

#### 가. 시설에 대한 투자 집중

-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예산을 지출항목별로 비교해보면 경기장 건설 등에 소요되는 직접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1.4%에서 42.5% 사이로 약 3분의 1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음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에 해당하는 간접투자비 비중은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가장 낮아 37.7%였으며 1988 서울올림픽에서는 53.5%였으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61.9%에 이르고 있음

<그림 1-7> 3개 대회 지출내역 비교



- 대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대회운영비에 대한 비중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6.2%로 가장 낮게 계획되어 있으며 서울올림픽이 15.1%를 사용하였고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19.8%로 모두 20%는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되었음

#### 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활용되는 국제경기대회

-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3개 대회를 놓고 보면 통상적으로 대회 자체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대회 총 비용의 20%이내에서 지출되고 있고 나머지는 경기장 시설과 부대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투입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시 필요한 많은 예산이 각종 건설 또는 개발사업의 입장에서 지역에 체육시설과 도로와 항만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인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 그 비중을 더하고 있음
- 지자체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는 이면에는 대형 이벤트의 유치를 통해 그 지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이러한 현상은 국제경기대회 유치의 긍정적인 효과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국제대회를 지역개발의 도구로 활용하여 국가재정의 유입을 꾀한다는 점에서 스포츠 이벤트에 직접적인 관심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다른 관점에서는 이미 갖추어진 시설을 활용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대회운영에 따른 경비 외에는 다른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대회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따라서 직접투자비와 간접투자비가 최소화 되거나 기반시설 신설 및 정비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입안된 도시 등에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경기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것임

## VI.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방안

### 1. 주요 현안과제

□ 한정된 국가 체육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국제경기대회 개최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역개발사업의 수단으로 삼아 무분별하게 유치경쟁에 뛰어 드는 관행을 개선하고 중앙정부가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심사승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자체의 독자적인 유치활동에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보다 경제적으로 개최하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국제경기대회의 효율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현안 과제는 경제성있는 국제경기대회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국제경기대회 개최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국제경기대회 승인 절차 개선 등과 이와 관련되는 몇 가지 세부 이슈들임.

#### 가. 경제성 있는 국제경기대회의 식별

□ 정태적으로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 개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가장 바람직한 국제경기대회 개최 방안은 사전적으로 경제성이 가장 큰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기서의 경제성에 대한 정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후생적 효과가 큰 국제경기대회로서 총체적인 국가후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이러한 대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제경기대회가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사전 정보가 있어야 하며, 유치 가능성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FIFA월드컵이나 하계올림픽 개최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개최의 가능성은 국제적인 경합 때문에 높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유치 가능성 까지 국제경기대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음.

- 경제성 있는 국제대회를 선별하는 이유는 유치단계에서부터 무분별한 유치활동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줄이고 국제경기대회 중에서도 옥석을 구별함으로써 체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임.

- 경제성 있는 국제대회의 선별은 경제적 효과, 사회후생적 효과 등 각종 평가지표를 발굴하여 측정하는 방법론과 기존 대회개최의 성과에 대한 정보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임.

-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기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하기 이전에 이를 참고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소 즉흥적이고 조급하게 국제경기대회 유치 활동에 착수하는 것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을 것임.

- 국제경기대회의 경제성 분석 자료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될 경우 재정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제경기대회의 경제성 분석 연구 등 풍부한 레퍼런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경기대회 유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나.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의 비용최소화

- 특정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가정하면 물론 개최 지역은 관련 인프라의 개선,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후생수준 증가 등의 효과가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동 대회 개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후생적 효과는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음.

- 반면에 개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국내외 관람객의 유치 가능성,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 새롭게 건립해야 하는 시설의 장기적인 활용성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

-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단기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나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역을 개최지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는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관심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이러한 대회의 유치가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즉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유치 기획단계 이전부터 해당 대회와 관련된 직접 및 간접시설의 준비, 대회운영 노하우 축적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대회 유치 성공 이후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대안은 도시인프라와 체육경기시설이 더 잘 갖춰진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서 특정 평가지표 면에서 항구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방안은 광역권별로 국제경기대회의 순환개최 또는 적정수준으로 안배하는 정책을 반영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중장기 종합계획과 전국적인 체육경기시설 배치 종합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는 지자체들로 하여금 개최 기회를 무계획적으로 사용하여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 및 개최하기 위한 사전계획 및 전략 수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결론적으로 비용최소화와 지역적 균형발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에 달려있으나 최소한 기존 경기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고, 새롭게 건설될 체육시설의 사후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유용할 것임.

□ 이와 관련한 정책방안으로는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장기계획, 전국 권역별 체육경기시설 배치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체육정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서는 SOC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의 원용, 특정 지자체 또는 경기단체의 국제경기대회 개최 요청, 고시 후 여타 개최 희망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 효율적인 유치계획을 제시한 지역을 선정

○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특정기간동안 지원 가능한 관련 재정규모와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당국과 사전협의한 후 고시하는 방식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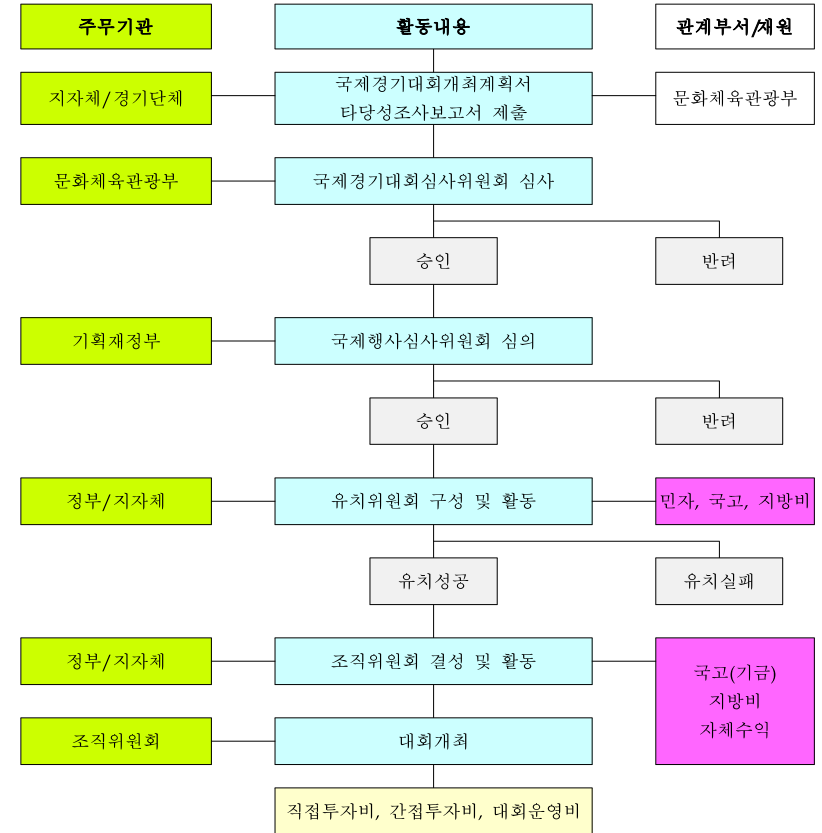
〈표 1-22〉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별 세계선수권대회의 종류

구분	단체명	개최주기	참가국수	참가인원
1	육상	2	190	2,000
2	축구	4(월드컵)	32	7,500
3	테니스	1	35	200
4	정구	4	42	400
5	탁구	1	140	1,500
6	핸드볼	2	24	576
7	역도	1	80	900
8	복싱	2	133	554
9	빙상	1(올림픽시 제외)	30	140
10	유도	2	97	538
11	체조	1	85	550
12	사이클	1(세부종목별 개최)	60	500
13	농구	4	남24/여16	남450/여300
14	배구	4	24	2,000
15	씨름	-	-	-
16	럭비	4(월드컵)	20	3,600
17	레슬링	1	60	450
18	수영	2	160	2,000
19	야구	4	22	400
20	스키	2	50	700
21	승마	4	45	300
22	아이스하키	1	남48/여32	1,000
23	하키	4	12	300
24	검도	3	44	600
25	궁도	-	-	-
26	사격	4	95	2,000
27	펜싱	1(올림픽시 일부종목만)	80	1,000
28	태권도	2	120-140	1,000
29	배드민턴	개인전 4년, 단체/혼합 2년	35	개인400/단체300
30	조정	1	50	1,500
31	인라인롤러	1	60	900
32	요트	1(월드챔피언쉽)	50	300
33	볼링	2(남녀격년제)	70	450
34	양궁	2	60	800
35	카누	1(올림픽시 제외)	100	1,200
36	골프	2	남67/여48	남190/여150
37	근대5종	1	35	200
38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2	25	150
39	산악	2	17	170
40	보디빌딩	1	70	400
41	세팍타크로	1	20	600
42	수중	2	30	400
43	우슈	2	66	800
44	소프트볼	4	16	240
45	볼슬레이스켈레톤	월드컵 매년 8, 9회	20	150
46	컬링	1	12	250
47	트라이애슬론	1	30	200
48	바이애슬론	1	35	450
49	스쿼시	2	40	400
50	당구	1	25	700
51	택견	-	-	-
52	공수도	2	120	2,000
53	댄스스포츠	1	50	300
54	루지	1	22	150
55	바둑	1	66	100

#### 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승인절차의 개선

- 현행 국제경기대회 개최 승인절차는 “국고지원을 받는 국제경기대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개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승인절차 및 요건, 평가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각 훈령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음.
  - 먼저 주무부처의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심의대상 국제경기대회는 국제기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로 10개국에서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든 대회이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국고지원이 필요한 5개국에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국제행사(국제경기대회 포함)에 대하여 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전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음.
-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유치, 후승인 등 절차를 무시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때로는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대회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중앙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치르는 대회는 지방정부의 재원만으로 대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함.
- 이러한 기존의 승인절차는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제어하는데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성과를 거두는데는 다음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음.

<그림 1-8> 국제경기대회 정부승인 및 유치 절차



- 첫째, 국제경기대회 개최 신청에 대한 평가가 절대평가기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평가 과정에서의 각종 정치적 압력, 로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심사평가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이 절대평가의 경우 온정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음.
- 둘째, 경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승인에 따른 중

양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사전에 고시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는 국고지원의 한계 등 느슨한 형태의 규정만 존재하고 연간 지원 가능한 예산규모,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명확한 인센티브 등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만 국제경기대회를 신청함으로써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2단계의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있는 국제경기대회를 선별하는 데 한계를 보임.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정을 통한 지원내용, 규모 등 관련정보를 사전 고지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 2. 제도개선 방안

### 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정

#### □ 입법의 필요성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통합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회 유치 시 마다 반복되는 개별 입법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일반원칙 확립하기 위함임.
-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려는 지자체에게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국제경기대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매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5광주하계U대회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10년 1월 27일에 공포된 바 있으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법안은 현재 국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차제에 일반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일반법의 제정을 논의 중에 있음.

#### □ 지원대상이 되는 국제대회의 종류와 범위

- 대회의 종류와 범위는 법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대회를 법률적으로 한정하여 지원범위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지원요청을 사전에 조정 가능하도록 함.
- 국가가 승인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종류를 그 규모와 관심 등을 기준으로 국제종합경기대회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주관하는 각종 올림픽대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로 한정함.
-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각종월드컵 축구대회, 국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그 대상으로 한정함.
-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제연맹의 회원국수, 대회 참가자수, 방송중계국수 등을 감안하고 대중적 관심을 감안하여 올림픽과 월드컵축구 등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차별화하도록 함.

〈표 1-23〉 국제경기대회의 분류

등급	구분	종합대회 종류	종목별대회 종류
가급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	하계올림픽대회, 동계올림픽대회,	종목별세계선수권 대회
나급	지역별 대회	하계아시아계임, 동계아시아계임, 장애인아시아계임, 동아시아경기대 회, 아시아청소년대회	종목별아시아선수 권대회
다급	대상별 대회	- 장애인올림픽, 유스올림픽 -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동계유니 버시아드대회(청년대상) - 마스터즈대회(노인대상세계대회) - 군인대회(군인대상세계대회) - 스페셜올림픽하계대회, 스페셜올 림픽동계대회(지적발달장애자대상) - 월드게임(GAISF 주관 비올림픽 종목대상)	- 종목별대학생 선 수권대회 - 종목별청소년 선 수권대회

〈표 1-24〉 종목별세계대회 언론인 참가자 수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종목	축구	육상	테니스	농구	수영	승마	사이클	핸드볼	탁구	조정
언론 참가자수	6,000	3,162	2,500	1,500	1,360	1,000	898	800	765	475

자료: 2005 IOC 종목별 평가보고서

〈표 1-25〉 올림픽종목 세계대회 중계국 및 중계권료 지불국가 수

(단위: 개국)

종목	중계국가	중계권료 지불국가	종목	중계국가	중계권료 지불국가	종목	중계국가	중계권료 지불국가
축구	213	213	테니스	89	89	농구	47	48
육상	180	180	양궁	88	0	레슬링	41	41
배구	165	180	배드민턴	82	83	역도	38	38
승마	155	15	소프트볼	80	1	체조	35	46
철인삼종	150	103	탁구	64	15	사격	20	4
근대5종	150	4	카누	59	52	유도	14	14
수영	138	78	펜싱	58	11	복싱	13	12
사이클	113	113	조정	54	57	태권도	4	0
하키	96	96	핸드볼	52	33			

자료: 2005 IOC 종목별 평가보고서

□ 승인 국제대회 지원내용

- 승인된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내용 및 범위를 법률로 지정하도록 함
-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회시설 보수 및 신설과 관련한 직접건설비, 도로 등에 대한 간접건설비, 대회 직접운영에 관련한 대회운영비로 구분함.
- 직접건설비와 간접건설비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도로는 50%, 경기장은 30%까지 국고보조가 가능
- 대회운영비는 자체조달의 비중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율로 지원 범위 제한

□ 국제경기대회유치 예비타당성 제도 명문화

-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종목의 연맹 및 협회에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고자 할 때 일정액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회에 한하여 지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정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국제경기대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통하여 해당 대회의 경제  
성 분석, 대회 개최의 적정성,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  
함으로써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신중한 유치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 현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예비타  
당성 조사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  
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경기대회에 한해서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국가  
의 재정지원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대회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함.

## 나. 전국 체육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 □ 계획수립배경

- 국제경기대회 개최 시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을 신축 혹은 보  
수하는 비용으로 '88 서울올림픽 때는 7,473억 원, '02 부산아시  
아경기대회 때는 5,146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14 인천아시아경기  
대회의 경우에는 1조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으며(표I-26 참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30-40%에 이르  
는 금액임

〈표 1-26〉 국내개최 주요 국제경기대회 지출비용

(단위: 억 원)

항목	88 서울올림픽		'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합계	비율	합계	비율	합계	비율
직접투자비	7,473	31.4%	5,146	44.6%	15,812	31.9%
간접투자비	12,742	53.5%	4,579	39.6%	30,593	61.8%
대회운영경비	3,611	15.1%	1,825	15.8%	3,086	6.3%
합계	23,826	100.0%	11,550	100.0%	49,491	100.0%

- 종합대회 외에 종목별대회의 경우에도 대회시설에 대한 투자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에 대한 부담이 막대함
- 이러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대비  
하고 평시에는 지역의 운동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국의 체육시설배치계획을 수립
- 전국체육시설계획의 수립은 체육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  
고 체육시설의 사후활용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지역  
간 유사대회에 대한 중복적인 유치를 위한 노력을 사전에 예방  
하게 될 것이며 종목별 지역특화에도 기여를 할 것임.
-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레퍼런스를 구축한다  
는 입장에서 체육시설의 국가적인 안배 및 국제대회의 유치의  
지역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유도

### □ 계획의 주요내용

- 현황조사를 통하여 등록체육시설 및 신고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  
설 등 지역별로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전국체육시설의 수  
와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국제종합경기대회 및 국제  
종목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정도를 규정함
- 종합경기대회 및 종목별대회 유치에 필요한 각 지자체의 시설  
수요와 대회 개최 계획 등을 파악하여 지역별 적정성을 고려하  
여 전국적인 시설 안배 계획의 수립

- 지역의 수요와 현재 보유 체육시설을 고려한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규모 및 재원 파악함
- 전국권역별 적정 체육시설의 수와 규모 종류 등을 결정함에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작업과는 별개로 전국의 시설의 규모를 국제경기연맹(IF's) 등의 시설 기준에 준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신축되는 시설의 개수와 규모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도록 함

〈표 1-26〉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기준년도: 2009말)

종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계	3,299	373	72	74	65	65	68	47	540	337	150	275	299	299	195	362	78
육상경기장	198	3	3	3	2	3	3	3	30	24	13	12	14	21	26	26	12
축구경기장	558	60	18	16	14	10	10	18	108	36	13	10	53	45	33	98	16
하키장	12	1	1	1	1	-	-	-	2	1	1	1	-	1	1	1	-
야구장	64	12	2	3	1	1	1	-	11	7	3	-	4	5	5	7	2
싸이클경기장	11	1	1	1	1	-	1	-	1	1	1	-	1	1	-	1	-
테니스장	487	53	7	13	5	14	7	1	96	60	16	26	44	48	32	61	4
씨름장	32	-	1	-	-	-	1	1	6	4	-	1	5	2	7	3	1
체육관	581	103	17	14	12	15	16	8	104	45	27	29	40	44	35	49	23
전천후개이트장	628	1	-	1	2	4	4	4	66	90	42	164	101	74	14	47	14
수영장	262	86	3	11	10	7	15	6	46	12	6	5	13	10	14	16	2
롤러스케이팅장	107	15	9	2	7	2	2	1	17	7	7	4	6	5	8	14	1
사격장	20	-	1	1	1	-	-	1	1	4	2	1	1	1	4	2	-
국궁장	220	8	2	3	7	2	5	3	36	31	13	21	12	35	11	29	2
양궁장	18	1	1	2	1	1	1	1	3	2	2	-	1	1	1	-	-
승마장	13	1	2	2	-	1	1	-	1	3	-	-	2	-	-	-	-
골프연습장	48	25	1	-	1	4	-	-	3	4	1	-	-	2	2	4	1
조정카누장	7	-	1	-	-	-	-	-	1	1	2	-	-	2	-	-	-
요트장	12	-	1	-	-	-	-	-	1	2	1	1	1	2	1	2	-
빙상장	21	3	1	1	-	1	1	-	7	3	-	-	1	-	1	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9 전국등록및체육시설현황

□ 기대효과

- 지자체 개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체육시설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
- 체육시설 건립 사후 생활체육에서부터 국제경기대회까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효율성 고양
- 전국적으로 매년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지원되는 국고와 지방비 등의 재정 투입은 전국체육대회 개최도시에 지원되는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비롯하여 막대한 규모로 본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국고지원의 적정성을 강화함
- 권역별 필요시설의 공유를 통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 스포츠 종목별 지역특화로 인한 집적화 및 스포츠관광자원 활용

다. 국제경기대회 승인 절차 개선

□ 현행 절차의 한계와 개선방향

-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 승인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경기대회 승인 심사'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개최 승인 심사'의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
- 이 두 단계의 심사는 모두 지자체의 무리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추진과 경제적인 대회 운영에 대한 사전 계획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제도에서 유도하고 있는 지정 기관에 의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제경기대회가 갖고 있는 재무적 타당성의 독특성과 국제경기개최에 따른 효과 측정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 더불어 현행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개최 심사 기준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경기대회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관리지침 상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심사기준은 필요성과 적정성으로 나누어 국제행사 유치계획을 심사하여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여부를 심사하는 세부심사기준에서 심사항목의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정량화 되어 있지 않아 그 평가의 결과가 객관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첫째,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 등을 제작하여 유치 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를 균질화하고 둘째, 국제경기대회 승인 절차에서 타당성의 점검을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셋째,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에서 경제성을 강조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넷째, 정성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합리성을 제거하는 정량적인 평가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지자체의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추진을 제어하도록 함

#### □ 국제경기대회 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

○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행사관리지침에서는 국

제행사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국제행사 승인 신청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기관별, 국제경기대회 특성별 그 타당성 분석의 틀이 상이하고 관점도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 일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IMAC)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 지침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의 틀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 일반지침은 도로·철도 부문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경기대회 유치의 타당성조사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을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도록 함

○ 새롭게 마련된 국제경기대회 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을 근거로 주관기관 혹은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분석의 기본 틀로 활용하도록 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의 타당성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균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승인심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국제경기대회의 경제성 평가 강화

○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과도한 열기를 경계하는 우선적인 이유 중 하나는 대회의 경제성을 무시하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과도한 투자를 요구함으로써 자원의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임.

○ 국제경기대회 개최의 경제성을 유치 승인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대회의 수익성,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비중 등을 반영함

- 대회의 수익성은 대회 개최로 발생하는 국고지원 및 지방비지

원액을 제외한 총수입이 전체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에서 체육시설 건립비용인 직접시설투자비의 비중이 낮은 대회에 대하여 높은 평가점수가 배정되도록 함.

- 이 외에 대회 자체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회가 중계되는 국가의 수, 해당연맹의 회원국 수, 미디어참가규모 등을 지표로 삼는 것을 고려함

□ 심사평가 기준의 정량화

- '국제경기대회심사' 시 적용되는 국제대회 승인 평가는 기존의 심사기준이 정성적인 방법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의 적용에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회의 공익성, 개최지 적정성, 경제성, 시설활용도 등이 적용 가능할 것임
- 국제경기대회를 국고 등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국제경기대회의 개최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알릴 기회를 제공 받게 되고 성공적인 대회의 운영은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표를 공익성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함.
  - 이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을 방송 등의 언론 노출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므로 대회를 중계하는 국가 수가 얼마인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국은 얼마나 되는지 보도 인력의 참가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개최지 적정성은 개최지역이 유치하고자 하는 대회가 일회성 행

사를 치루고 끝내게 된다면 대회 유치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으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준 작동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하도록 유도는 목표로 기준을 마련함

- 개최지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간 해당지역에서 관련대회를 개최한 빈도를 대회규모별로 점수를 차별화하여 평가하고, 지역의 대회 유치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른 지지율, 대회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도 등을 평가에 반영함
- 경제성은 대회개최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수익성 여부는 국제경기대회 개최의 주요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임
  - 대회의 경제성 부분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접시설투자비가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며 타당성보고서상의 사업타당성 유무 여부, 수익성 여부 등을 경제성 평가의 정량적 지표로 활용함
- 대회가 개최되는 체육시설은 대부분 대규모로 상당량의 재원 투자를 요하게 되므로 투입된 재원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는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시설활용도의 정량적 지표로 반영
  - 이에 대한 평가지표는 대회 후 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인 시설운영비를 확보하는 지를 평가하고, 대회 시설이 사후에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정도를 평가함

라. 국제경기대회 심사기준 개선안(예시)

-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의한 국제행사 승인 절차와는 별

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절차에서 적용되는 국제경기대회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토록 함

- ‘국제경기대회심사’ 시 적용되는 국제대회 승인 평가는 기존의 심사기준이 정성적인 방법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의 적용에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 심사기준은 정량적 기준 60점과 정성적 기준 40점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그 평가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평가를 통해 70점 이하의 대회에 대해서는 국제대회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함

정량적 기준(60점)			
1	공익성(15점)	중계국 수	5점
		해당연맹 회원국 수	5점
		미디어참가규모	5점
2	개최지 적정성(20점)	최근 10년 간 지역내 관련대회 개최빈도	5점
		주민지지율	5점
		관계자지지율	5점
		시설준비율	5점
3	경제성(15점)	직접투자비 비율	5점
		사업타당성	5점
		수익성	5점
4	시설활용도(10점)	시설사후활용방안	5점
		사후 시설활용 일수	5점
정성적 기준(40점)			
5	계획의 적정성(15점)	대회유치계획 적정성	5점
		대회개최계획의 적정성	5점
		예산의 적정성	5점
6	체육적 가치 실현성(15점)	대회개최를 통한 스포츠의 확산	5점
		국민건강 및 여가 기여도	5점
		스포츠산업 발전 기여도	5점
7	사회문화적 가치 실현성(15점)	지역발전 기여도	5점
		지역 주민의 화합 및 인식 전환에 기여	5점

□ 평가내용

○ 공익성

- 국제경기대회를 국고 등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국제경기대회의 개최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알릴 기회를 제공 받게 되고 성공적인 대회의 운영은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을 방송 등의 언론 노출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므로 대회를 중계하는 국가 수가 얼마인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국은 얼마나 되는지 보도 인력의 참가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공익성(15점)				
중계국 수	$\frac{\text{중계국수}}{205} \times 100$	100-0	5점 환산	*IOC 회원국수
해당연맹 회원국 수	$\frac{\text{회원국수}}{205} \times 100$	100-0	5점 환산	*IOC 회원국수
미디어참가규모	동일대회 보도인력 참가자 수	최대5점	5	1,000명 이상 5점 500명 이상 4점 250-499명 3점 100-249명 2점 11-99명 1점 10명 이하 0점

○ 개최지 적정성

- 개최지역이 유치하고자 하는 대회가 일회성 행사를 치루고 끝내게 된다면 대회 유치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으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준 작동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하도록 유도함.

- 개최지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간 해당지역에서 관련대회를 개최한 빈도를 대회규모별로 점수를 차별화하여 평가하고, 지역의 대회 유치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른 지지율, 대회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도 등을 평가에 반영함.

개최지 적정성(20점)				
최근 10년 간 지역내 관련대회 개최빈도	$\sum(\text{대회규모} \times \text{개최대회수})$	최대5점	5	국제대회 1점 전국대회 0.5점 국내지역대회 0.2점
주민지지율	주민대상의 대회개최 찬성률	100-0	5점 환산	타당성 보고서
관계자지지율	대회관계자의 찬성률	100-0	5점 환산	타당성 보고서
시설준비율	$\frac{\text{보유공간}}{\text{필요공간}} \times 100$	100-0	5	100% 이상 5점 90-100% 미만 4점 80-90% 미만 3점 70-80% 미만 2점 60-70% 미만 1점 60% 미만 0점

○ 경제성

- 대회개최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수익성 여부는 국제경기대회 개최의 주요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할 것임
- 대회의 경제성 부분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접시설투자비가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며 타당성보고서상의 사업타당성 유무 여부, 수익성 여부 등을 경제성 평가의 지표로 활용함

경제성(15점)				
직접투자비 비율	$\frac{\text{직접시설투자비}}{\text{총사업비}} \times 100$	0-100	5	0-5% 5점 6-10% 4점 11-15% 3점 16-20% 2점 21-25% 1점 31% 이상 0점
사업타당성	타당성 보고서 결과	타당성 유무 판단	5	타당성 있음 5점 타당성 없음 0점
수익성	$\frac{\text{총수입} - (\text{국고지원} + \text{지방비지원})}{\text{전체사업비}} \times 100$	0-100	5	90 이상 5점 70- 90% 미만 3점 50-70% 미만 2점 30-50% 미만 1점 30% 미만 0점

○ 시설활용도

- 대회가 개최되는 체육시설은 대부분 대규모로 상당량의 재원 투자를 요하게 되므로 투입된 재원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는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반영

시설활용도(10점)				
시설사후활용방안	$\frac{\text{연간수익}}{\text{연간운영비}} \times 100$	0 이상	5	100% 이상 5점 90-100% 미만 4점 80-90% 미만 3점 70-80% 미만 2점 60-70% 미만 1점 60% 미만 0점
사후 시설활용 일수	연간시설활용일	0-100	5	300일 이상 5점 240-299일 4점 180-239일 3점 120-179일 2점 60-119일 1점

- 이에 대한 평가지표는 대회 후 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인 시설운영비를 확보하는 지를 평가하고, 대회 시설이 사후에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정도를 평가함

○ 계획의 적정성

- 국제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지자체 혹은 기관에서 수립된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가 필요함
-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는 대회 유치 계획의 적정성, 대회 개최 계획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계획의 적정성(15점)	
대회 유치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0-5점
대회 개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0-5점
대회 예산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0-5점

○ 체육적 가치실현성

- 국제경기대회는 체육행사인 만큼 체육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의 여부가 다른 행사 평가의 기준과 달리 기준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대회의 스포츠 확산 기여 여부, 대회를 통한 국민여가 및 국민 건강에 증진시키는가의 여부, 대회를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

체육적 가치실현성(15점)	
대회 개최를 통해 해당 스포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0-5점
대회 개최가 국민 여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가?	0-5점
대회 개최가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가?	0-5점

○ 사회문화적 가치실현성

- 사회적·문화적 파급효과는 국제경기대회의 개최로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의 하나로 지역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변화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평가지표의 일부분으로 반영하여 국제경기대회의 의미를 고려함.
- 사회문화적 가치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와 대회개최가 지역 주민의 화합과 인식 전환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평가지표로 사용함

사회문화적 가치실현성(10점)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가?	0-5점
대회 개최가 지역 주민의 화합 및 인식 전환에 기여하는가?	0-5점

마. 국제경기대회 유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확대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확대

-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채원조달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지침과 조사방법 등이 세밀하게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같은 체육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인 도구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문화적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형편임.

- 국제경기대회와 같은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의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현행 제도에서 구체화하기에는 제한적인 환경임.
- 현재 유치가 추진되거나 향후 유치를 위해 계획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도 적합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조사도구를 마련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국제경기를 위한 독립적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도 국제경기대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기준을 상향하여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무분별하게 시도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합리적 수준에서 제어하고 국제경기대회의 재정투입 규모를 감안하여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서 법률로 한정하여 도입하도록 함.

□ 국제경기대회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기관의 지정

- 국제경기대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 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혹은 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3조에 의거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 관리센터(PIMAC)'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과는 별도로 체육과학연구원 산하에 '체육투자평가센터(Sports Investment Evaluation Center)'를 두고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거나 50억 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체육투자평가센터에서는 '국제경기대회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을 연구·발간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회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에 활용하도록 함.
- 이와 함께 체육투자평가센터에서는 국제경기대회 예비타당성제도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그 절차와 적용 방안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국제경기대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및 추진체계

- 국제경기대회 예비타당성조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제도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국제경기대회를 포함



<그림 1-9> 국제경기대회 예비타당성제도 추진절차

- 이에 대한 조사기관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서 체육과학연구원 체육투자평가센터로 이관하는 형태로 그 기본체계는 동일하게 유지함.

### 3. 절차개선에 대한 제언

- 국내에서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지자체와 관계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종합경기대회는 1997년 무주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린 이후, 2002 부산아시아게임, 2002 한일월드컵,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이며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는 1989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990년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1999년 세계펜싱선수권대회와 2006년 부산세계볼링선수권대회, 2009년 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 2009년 울산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이 있어왔음
- 향후에도 2011년 대구육상세계선수권대회, 2013 충주조정세계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이 대회 개최가 확정되어 준비 중에 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2년 축구월드컵 등이 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
-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스포츠의 측면에서의 효과, 경제적인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외에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등의 국가적인 효과 등이 있을 수 있음
- 스포츠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 스포츠계 위상을 고려한다면 일정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일정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치 또한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에 대한 책임성도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적극적이며 과열의 양상을 띠고 있어 철저한 계획과 장기적인 준비를 요구하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행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예산의 확보를 국비와 지방비에 주력하여 사업 자체의 수익 확보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결과 최근에는 경상북도 상주시의 '제9회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경기도 화성시의 '코리아매치컵 국제요트대회' 등이 국제대회로서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바 있음
- 더불어 국제대회를 치루기 위한 대부분의 대규모 시설은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반면에 적절한 활용계획의 미비로 시설의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승인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그 지원 대상과 절차, 방법 등을 한정하도록 하며, 둘째, 전국체육시설배치 계획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적절한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중복적인 투자를 방지하도록 하고, 셋째,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개선하여 대회의 경제성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며, 넷째, 국제경기대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범위 이상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국제경기에 대하여도 실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경기대회 승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러한 방안을 동원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의 낭비가 없이 국제경기대

회를 유치하도록 유도하며 대회 개최 과정에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회가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회 개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대형국제경기대회 개최 시에 정부는 재정적 지원 외에 인력지원을 통해서 대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결국 이중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이 축적한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지식은 확대 재생산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 양성하여 스포츠이벤트 전문가가 이러한 대회의 유치 및 개최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